

美 장기 금리, 금융위기 직전 수준 월가 '채권 자경단' 그림자 드리워

10년 4.67%·30년 5.2% 고공행진
금리인상 가능성에 시장 불안 고조
기술주 등 밸류에이션 부담 커져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으며 월가에 다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번에는 고유가와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5.20%까지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5.18%로 마감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4.67%까지 상승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앞으로는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인상 가능성 부상"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자로 국제 발행이 늘어나자 장기물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이상 인상할 가능성을 41.4% 반영하고 있다. 일주일 전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모닝스타의 리즈 템플턴 수석 상품 매니저는 "시장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장기 국채 구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ING의 벤저민 슈뢰더는 "수석 금리전략가도 '시장은 명확히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는 22일 취임하는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도 부담이 커졌다. 그는 과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취임과 동시에 마주한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의 역습…기술주와 소비까지 흔들다

장기금리 상승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카드 금리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이는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을 바탕으로 급등했던 반도체와 기술주는 금리에 민

감하다.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는 성장주의 특성상 금리가 오를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나스닥 종합지수를 중심으로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에도 이러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본과 영국 등 주요국 장기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고유가, 재정 부담, 국제 공급 확대라는 조합이 전 세계 채권시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월 맥거프 프라이م 캐피털 파이낸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채권 자경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이 정부와 중앙은행에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채를 대거 매도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투자자들을 뜻한다. 이용어는 월가의 대표적인 시장 분석가인 에드 아테니 아테니리서치 대표가 1980년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테니 대표는 특히 케빈 워시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예상보다 매끄러운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케빈 워시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재하게 되지만 실제 통화정책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채권 자경단'이라며 "채권시장은 케빈 워시의 비둘기파적 입장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구윤철(왼쪽 2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수아 필립 상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정부 내수 활성화 정책 등 소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힘 모아야"

G7 재무장관회의

獨·프랑스 등 재무장관 양자 면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은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 중 하나로 글로벌 불균형 확대를 꼽았다. 이어 후자국과 적자국이 힘을 한데 모으고 함께 헤쳐 나가야만, 각국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에 길이 열리고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회원국 외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등 4개국이 초청국 지위를 가졌다.

한국이 G7 재무장관회의 확대세션 전체 일정에 초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이달 18일 G7 회원국만 참석한 데 이어 19일에는 초청국까지 포함해 열렸다. 중전에 우리 정부는 확대세션 '일부' 논의에만 참석한 바 있다.

1세션은 글로벌 불균형을 주제로 열렸다. 참여국들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금융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요청받고,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리스크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후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동시적인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불균형은 특정 국가

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또 내수 활성화·국내투자 촉진, 해외외국 내수유입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수원국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다자개발은행·민간부문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추진 중인 국제기구 기반 글로벌 AI 허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개발도상국 AI 역량 강화를 G7 핵심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독일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캐나다 프랑수아 필립 상파뉴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

독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가공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에너지 안보, 핵심광물,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 측은 한국의 핵심광물 제조·가공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고 공조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공급망·경제안보·AI 협력 등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metro

중동리스크에 원화 약세… 환율 1500원대 지속

에너지 취약성 등 불확실성 영향
주요국 통화대비 하락세 두드러져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에너지 취약성 및 삼선전자의 파업 돌입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의 투자자금도 빠르게 이탈하면서, 원화값이 다른 통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6.8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와 비교해 1.0원 내린 수준으로, 주간종가 기준 환율이 4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기면서 고회환율에 대한 우려도 재부상했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원화값의 약세도 이어졌다. 이날 원·엔 환율의 주간 종가는 100엔당 948.3원을 기록해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원·위안 환율은 위안당 221.2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748.6원을 나타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눈앞에 뒀다.

최근의 원화값 하락은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위축 때문



20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에 거래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기반 해상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은 이번 상품을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달 7일 설립된 이란 해협청도 이날 SNS를 통해 "허가없는 통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해외 투

자의 매도세도 원화값을 끌어내렸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와 삼선전자의 총파업 가능성 등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차익실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을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해외 투자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바라보는 심리가 악화됐으며, 원화의 약세 기대치도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씻어줄 호르무즈 항행 정상화나 중전협상 진전 등 호재가 부족한 탓에 당분간 시장의 위험자산 포지션 정리와 높은 현금 선호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신중국 통화인 원화 입장에서 강달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은 1510원대에 저항선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이달 금통위 '금융안정 평가' 관심집중

>> 1면 '가계빚 2000조...'서 계속

변수는 주택 거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앞두고 매물이나 오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선행지표인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4월 흐름도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은행권 주담대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면 한은의 통화정

책 판단은 더 복잡해진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와 주택시장 기대를 자극할 수 있고, 이는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은의 금리 선택은 이미 물가 반등과 고환율 부담으로 인하보다 동결 또는 상방 경로 점검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더해지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

5월 금통위의 관심도 기준금리 결정 자체를 넘어 금융안정 평가로 넓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와 환율이 금리 경로의 상단을 자극하는 변수라면, 가계부채는 금리 경로의 하단을 막는 변수다. 물가가 둔화되더라도 주담대와 비은행권 대출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통위들이 인하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